

어명소 차관, “세계 최고 항공물류 강국을 위한 지원 강화”

-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현장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4일(금) 인천공항 항공물류 현장을 방문하여 콜드체인 등 신성장 화물시설,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- 어 차관은 “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항공업계가 극복해 낸 것은 인천공항 국제선 화물물동량 2년 연속 세계 2위의 실적을 가져온 항공물류 업계의 노력 덕분”이라고 평가하면서 “종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”고 하였다.
 - 동시에 “항공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금액의 30%를 차지하고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, 바이오·전자상거래 등의 부상과 함께 지속 성장”하는 분야로,
 - “글로벌 항공화물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신성장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물류 인프라 적기 확장이 중요함”을 강조하고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.
- 한편, 이날 물류업계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요청하고 물류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도 건의하였다.
 - 이에 어 차관은 “공항공사·지자체와 함께,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걸맞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항공물류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 무엇보다도 “종사자들의 안전문제도 철저히 챙기겠다”고 덧붙였다.
- 아울러, 어 차관은 인천관제탑을 방문하여 국제선 회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도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을 격려하고 인천공항의 든든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당부하였다.

2023. 4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